

융복합 상품과 자본축적

이강복¹⁾

Convergence goods and capital accumulation

Kang-Bok Lee¹⁾

요약

본고에서 융복합은 자본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어 자본축적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자본은 융복합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이고 지속적인 이윤 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융복합이 자본주의 상업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물인간성의 확대로 지속불가능한 자본주의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융복합적 상품 생산이 탐욕만이 아닌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함께 가질 때 경제적 욕망을 앞세운 인간의 탐욕도 치유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지구촌도 가능하다.

핵심어 : 융복합, 자본축적, 축적 위기, 디지털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at convergence is a result reflecting the demands and needs for capital to overcome a crisis of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creating a new profitable model. Capitalism will reinforce the basis for accumulation of stable and continuous profit by developing convergent products. However, if convergence pursues only commercial value in capitalism, there is great possibility that unsustainable capitalism will appear due to increasing inhumanity. When the production of convergent products have humane aspects rather than greed, human greed for pursuing economic desire can be curtailed and a sustainable earth can become possible.

Keywords : convergence, accumulation of capital, crisis of accumulation, digital convergence.

1. 서론

근래에 융복합이나 통섭이라는 단어가 학문세계에서나 실물경제(상품경제) 등 사회전반의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다. 학문분과들 사이의 다양한 유형의 통합을 둘러싼 주장에서부터 융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를 강조하려는 정부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자연과학은 물론 인문사회과학이 저마다의 학문적 경계를 굳고 울타리를 친 탓에 전공영역 간 소통이 단절되는 현상이 빈번하였다.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체계는

Received (April 10, 2015), Review Request(April 13, 2015), Review Result(April 30, 2015)

Accepted(May 21, 2015), Published(June 30, 2015)

¹501-759 Dept. Economics, Chosun Univ, Seosuk-dong, Dong-gu, Gwangju, Korea
email: leekb21@daum.net

전문화와 세분화를 통해 구축된 학문영역별 전문지식체계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파편화되고 단절된 지식을 융복합과 통섭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진정한 융복합과 통섭은 학문 분야 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학문적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제와 해결하기 어려운 대안을 다른 학문 분야의 시각과 관념으로 들여다보면서 학문간 소통하는 가운데 섭렵하려는 통섭이 되어야 한다[1]. 이는 학문 간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단일학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연구대상을 섭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이는 다양한 학문의 통합적 노력을 넘어 이질적 학문 간에 존재하는 벽을 부수고 경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론적 틀과 학문체계를 구축해 보려는 초학문적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최근에는 융복합의 기술적·기능적 측면을 넘어 문화적 측면과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융복합과 통섭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수익창출의 모델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본축적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융복합과 통섭에 대한 논의는 과학철학적, 기능적, 학제적 관점에서 논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융복합과 통섭을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궁극적 목적인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나 보고서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융복합과 통섭을 자본축적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융복합과 통섭의 개념 및 자본축적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융복합과 통섭이 어떠한 형태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지를 자본축적의 예를 통해서 살펴 본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융복합과 통섭이 지향해야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융복합과 자본축적

우리는 보통 21세기를 융복합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융복합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자본주의 시대 융복합(통섭)의 진짜 중착역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2010년 융복합 상품의 대명사가 된 아이패드 시연식에서 “애플이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우리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2]. 이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디지털기기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아날로그 감성을 만족시켜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 즉 융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융복합 상품의 대명사인 애플의 아이패드, 닌텐도의 위(Wii), 페이스북 등 인기를 끈 제품들도 공통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기술적 서비스로 재현한 것이지만 결국 수익성(=이윤)을 전제로 생산한 것이다. 곧 융복합 상품이 미래에 중요한 수익 또는 이윤창출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융복합에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상품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상품생산의 목적은 잉여의 수취, 즉 자본축적에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자본주

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는 '거대한 상품더미'로 나타나고, 하나하나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기본형태로 나타난다.”[3] 상품은 교환되는 물건을 말하는데, 바로 그 상품이 부의 기본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항상 모순에 직면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상품생산이 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에서 기본전제로 내세우는 것 중에는 첫째로 경제활동을 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가, 둘째로 희소성을 가정하거나, 셋째로 인간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전제하는 것 등은 모두 자본주의 상품생산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다.

먼저, 통섭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문학작가인 찰스 퍼시 스노우(Charles Percy Snow)는 195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연한 '두 문화와 과학혁명'을 토대로 1964년에 『두 문화 The Two Cultures』를 출간하였다. 이 저서에서 스노우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과학적 문화와 전통적·인문적 문화 사이의 단절 내지는 대립이 일찍이 오늘날만큼 심각한 시기가 없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두 문화 사이의 단절 현상, 분극화 현상의 심화는 진정한 문화 자체의 발전에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회발전에도 치명적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 각기 다른 두 문화를 추구하는 그룹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4]. 이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지 말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도 스노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비단 자연과학과 인문학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경계를 허물어야 할지, 또한 어떤 방법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만이 점차 양산되고 있을 뿐 경계는 도무지 허물어질 조짐이 안 보인다. 왜냐하면 큰 범주들(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학)끼리의 단절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또 내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기에 그 내부에서도 상호작용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은 법학·사회학·경제학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인문학은 철학·사학·문학으로, 자연과학은 생물학·생태학·환경학·화학으로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달에 따라 나노학·바이오학 등으로 더욱더 세분화되고 있다. 예술의 경우도 미학·음악학·체육학 등 점차 그 이름도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세분화는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각기 다른 두 분야를 합쳐서 부를 때 응용인문학, 인문과학, 융복합학, 인지과학 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이질적인 분야의 단어를 합쳐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Culture+Enomics), 그린노믹스(Greenomics, Green+Economics), 디자인노믹스(Designnomics, Design+Economics)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분야 간의 통합 전략을 펼치고 있다.

1840년에 자연과학자 윌리엄 휴얼(William Whewell)은 『귀납적 과학: The Philosophy of the Inductive Sciences』[5]이라는 책에서 Consilience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설명의 공통기반을 만들기 위해 분야를 가로지르는 사실들과 사실에 기반한 이론을 연결함으로써 지식을 통

합하는 것을 뜻한다. 휴얼은 “통섭의 귀납적 결론은 사실들로 이루어진 한 분야의 결론에 의해 얻어진 귀납적 결론이 또 다른 분야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일치할 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섭은 어떤 것에 대해 발생한 사실을 해석하는 이론들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6]. 여기서 귀납적 결론이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만 통섭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Edward Osborne Wilson) 하버드 대학 교수는 1998년에 윌리엄 휴얼(William Whewell)의 ‘consilience’ 개념을 부활시켰고, 최재천은 『통섭』(사어언스북스, 2005)의 옮긴이 서문에서 ‘통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통(統)’은 ‘큰 줄기·본 가닥의 실·혈통·핏줄·살마리’라는 뜻이고, ‘섭(攝)’은 ‘당기다·끌어당기다·잡다·쥐다·굳게 지키다·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두 한자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큰 줄기’와 ‘잡다’를 결합하여 “사물에 널리 통하는 원리로 학문의 큰 줄기를 잡다”로 통섭을 개념화하였다. Consilience는 라틴어의 consili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con’은 영어의 with로 ‘함께’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salire’는 ‘to leap’으로 ‘뛰어넘다’ 또는 ‘뛰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휴얼은 두 의미를 합쳐 ‘jumping together’, 즉 ‘더불어 넘나들’으로 정의 하였다. 즉 “서로 다른 현상들로부터 도출되는 귀납들이 서로 일치하거나 정연한 일관성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7]. 그러나 ‘사물에 널리 통하는’, ‘더불어’, ‘넘나들’, ‘뛰어넘다’라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통섭은 이질적인 것들끼리, 서로 경계에 놓여 있는 것끼리 섞어 통하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 낸다는 의미로 ‘경계 넘어서기’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최근 트렌드 중의 하나인 융복합(融複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을 뜻한다. 융합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둘 이상의 물질이 녹아서 하나로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결합을 통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 졌을 때를 의미한다. 영어 convergence는 ‘한 점으로 모이다’라는 수렴의 의미로, 본래의 어원은 라틴어 ‘Convergere’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으며, ‘함께’라는 의미의 ‘Con’과 ‘어떤 방향 또는 상태로 향하다와 기울어지다’라는 의미인 ‘vergere’가 합쳐져 Convergence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유사한 단어로는 fusion, hybrid, merge, amalgam, complex, compositeness, compound, collaboration 등이 있다.

실제로 융복합이란 단어는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를 4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먼저, 융복합을 학문간의 협동·협업관계, 즉 학제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학제는 분과학문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소통을 향상시키는 협력관계의 차원이며, 분과학문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융복합의 본래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융복합을 퓨전으로 이해하는 경우로 서로 이질적인 것을 합성하여 새로운 공동효과를 만들어내는 제3의 기술을 의미한다. 퓨전이란 개념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혼합·합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리적 통합이나 새로운 학문, 지식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셋째, 융복합을 수렴의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수렴이라는 개념은 수렴이 분과적 기술, 파편화된 기술을 하나의 기술체계로 통합한다는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넷째, 융복합을 통섭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통섭의 의미는 분과학문의 장벽을 넘어선 총체적 이해, 지식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우리가 융복합의 시대, 왜 통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다. 융복합과 통섭이라는 개념이 태동한 것은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복잡하고 다기화하는 현실 자본주의 사회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복잡한 사회화·과학화로 인한 문제들, 연관지어 일어나는 사회현상들, 삶의 방식과 인간 욕망의 다양화, 불균등한 제관계 등을 하나의 학문 영역이나 분과학문의 지식만으로는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의 교류와 섞임(협력)을 통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과 통섭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융복합과 통섭은 과거에는 다른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거나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가 기울어가는 중으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축적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자본은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신자유주의 도입. 즉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감세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활동에서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시장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시장의 가격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재편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양대 진영의 체제경쟁 과정에서 1989년 이후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전 지구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면서 각 국가들의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진전되었다. 글로벌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자본의 축적공간이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품시장 개방은 이전의 국가 내의 경쟁체제가 세계 내의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별국가는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의 추세에 따라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어 범세계적인 경쟁체제는 가속화 되었다.

개방화, 탈규제, 지구화 등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영역을 크게 줄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 정부가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킨다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조세를 인상하게 되고,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조세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투자처를 옮기게 된다. 그 결과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오히려 줄게 되어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

이 같이 국가가 경제활동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축소되고 있고, 기업이나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경제는 시장의 논리에 더 지배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그 결과 자본과 임노동간, 계층간, 지역간, 국가간, 임노동 내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어, 오히려 자본주의사회를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결국 자본은 자본의 축적 위기를 만회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적극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융복합적인 상품의 개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본축적은 물론 자본축적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다.

이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가 1980년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컨버전스, 융합, 잡종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했다. 기존의 분야들이 합쳐져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분야들이 또 다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8].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가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미디어 환경과 소통양식의 변화로 정보와 콘텐츠가 다른 영역을 넘나들어 부문간 경계가 약화됨으로써, 기존의 이질적 요소가 모이고(수렴), 섞이고(혼합), 바뀌고(변형), 나뉘고(분화), 거듭나거나(재구성) 새로운 것으로 창발하는 현상이다[9]. 대표적인 디지털 컨버전스 상품으로는 디지털카메라, 가전기기, 개인용 컴퓨터 등이 있다.

3. 융복합의 상업성과 자본축적

융복합 기술이나 통섭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나 분야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문화적인 측면에서 통섭의 결과물로 등장한 대표적 상품이 영화이다. 영화는 가장 엔터테인먼트적인 콘텐츠를 통해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 공학 등을 조화시켜 엄청난 수익을 내는 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9년 12월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이다. 카메론 감독은 어린 시절 소설가가 되기 위해 소설과 만화에 빠졌지만, 대학시절에는 해양생물학을 전공하다가 후에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꾼 이유는 사물의 근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관심 때문이었지만, 수학 실력이 부족해 좀 더 창의적인 일을 찾기로 하였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영화사에서 기술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촬영 및 세트 디자인 일도 하게 되었고,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은 <아바타>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아바타>에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을 영화라는 매체로 구현하면서 여러 가지 코드를 집어넣었다. 선악의 대립이라는 기본 스토리에 환경생태(자연과괴), 생물(판도라 행성의 동식물들), 종교(토테미즘과 샤머니즘), 과학과 예술(떠다니는 할레루야 산), 사상(동양사상), 역사(제국주의 침략) 등을 잘 섞어 기술로 표현하였다. 총제작비 5,300억 원으로 국내 관객 1,360여만 명을 동원하여 국내 박스 오피스(box office) 수입만 1,264억 원을 벌였으며, 총수입은 약 28억 달러(약 3조 원) 정도 된다고 한다.

마케팅 영역에서도 통섭을 통해 진화론과 심리학을 융합하여 인간의 소비욕구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이를 기업의 상품생산과 소비자들의 소비욕을 유발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자본축적에 활용한다. 미국 뉴멕시코대학 제프리 밀러(Geoffrey F. Miller) 교수는 “마케터에 필요한 것은 다윈이다.”라고 말하면서 진화소비자심리학을 연구하였다. 그는 현대의 소비자본주의가 어떻게 인간 본성에서 생겨났는지 관심을 가졌다. 밀러는 선사시대의 생존과 번식의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광고와 브랜드에 의존적인지를 밝혔다. 그는 저서에서 그동안 진화심리학과 소비자 연구가 마케팅에 잘 이용되지 않은 까닭은 대다수의 소비자 연구자들은 심리학을 잘 모르는 반면에 심리학자들 역시 마케팅, 광고, 제품개발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10].

다음으로 감성을 담은 스마트기술이 새로운 수익창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성 UX(User eXperience) 기술은 ICT 제품,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경험, 정서, 의미와 활용, 편의성, 효율성 등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자의 관점보다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높이는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이다[11]. 디지털 감성 기술은 '위드(WITH)'로 요약할 수 있는데, 따뜻한 기술(Warm technology),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그리고 하이브리드(Hybrid)다. 따뜻한 기술은 디지털 피로감에 지친 현대인들을 인간적 감성을 통해 위로한다. 화면을 전환할 때 종이 책장을 넘기는 듯한 느낌, 디지털 액정을 누르면서도 마치 실제 키보드를 만지는 것 같은 촉감을 내는 기술이다. 무수한 사물과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실현되는 지능형 네트워크인 사물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하이브리드 기술 도래로 사람들은 자동차를 새로운 스마트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바로 아날로그의 역습이다. 디지털 기기에 아날로그를 심어야만 이용자들이 감동시키고, IT·모바일·미디어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박단소(輕薄短小)를 실현하는 혁신적 기술, 글로벌 공급망관리를 통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R&D, 그러면서도 민첩하게 대응하는 IT 경쟁력이 통섭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주위 모든 것이 연결되고 IT와 다른 산업 간 융·복합화가 본격화하면서 사람 감성을 담은 디지털 감성 기술이 이윤수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12], 이는 결국 기초과학, 인문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 공학 등 여러 분야 학제적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 1] 해외 감성 및 ICT 시장 현황 및 전망

[Table. 1] International emotion and ICT Market Status and Forecast (단위 : 억 달러)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 액	185	206	227	247	268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성 ICT 현황 및 전망", 「KEIT PD Issue Report」, 201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PC, 디지털 TV·디스플레이 등 제품에 적용되는 감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185억 달러에서 2019년 268억 달러로 연 10% 수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13].

요즘에는 뇌과학에 대한 관심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과 그의 기능 및 그에 대한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생물학, 의학의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는 분자생물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뇌과학 연구, 뇌 관련 질환을 연구하는 분야, 행동 및 인지기능을 연구하는 분야로 세분될 수 있다. 특히 행동과 인지를 연구하는 분야는 인간의 모든 행동,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등이 두뇌 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자본주의 상업성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인간의 뇌 활동과 소비 심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인재상은 ‘박학다식’, ‘다빈치적 인물’, ‘팔방미인’ 등 소위 만능형 인재이다. 이것은 기존에 “한 우물만 파면 전문가가 되고 성공한다”는 관념을 변화시킨 것으로 사회 변화와도 관련이 있지만,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 중심의 사회로, 또 정보 중심의 사회에서 문화·콘텐츠·감성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기업이 과거와 다르게 노동력을 투자 개념보다는 비용 개념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이해된다. 한 분야의 전문성만 갖는 것 보다는 다방면에 능통한 다재다능한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노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곧 기업의 수익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학 교육도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통섭 교과목들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전공도 복수전공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융복합 상품의 대명사 스마트폰이나 전기·전자용품들의 개발도 자본의 잉여수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편리성의 측면에서 이들 기기들은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노동력의 판매, 즉 업무가 시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던 것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의 여가시간이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으로 얼마든지 전환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잉여가치의 발생은 타인(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많이 빼앗을수록 자본가의 잉여는 늘어난다.

4. 맺음말

사람들은 왜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득(돈, 자본)버는 데 쓰는가? 이유는 하나다. 소득이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자본가)은 이윤수취를 목적으로 생산한다. 욕구 충족과 필요를 위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자본축적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융복합이니 통섭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자본주의 상업성, 즉 이윤수취를 전제로 한 것이다. 사람(인간)을 소비자라고 보고, 이 소비자의 소비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적인 상품을 만들고, 생산된 이 상품들을 통해 어떻게 이윤을 획득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인간의 심리(마음), 뇌(신경)를 연구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이윤수취는 물인간성과 생명에 대한 존엄을 포기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상품생산은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고 있지만, 극복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융복합적 사고는 자본주의 사회의 복잡다기한 제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어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상업성만을 전제로 한 융복합적 상품 생산이 탐욕만이 아닌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함께 가질 때 경제적 욕망

을 앞세운 인간의 탐욕도 치유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지구촌도 가능하다.

References

- [1] Young-man Yu, "Teaching 2.0 times, reflection on the nature of 'teaching,'" Edited Gwang-Ung Kim, What will we learn in the future, TreeBook (2009).
- [2]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005008365> May 30 (2011).
- [3] Marx, Karl, by Translation Sin-jun Gang, Das Kapital I -1, Gil (2010).
- [4] Snow, C. P., The Two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5] William, Whewell., The Philosophy of the Inductive Sciences, Kessinger Publishing, (2012).
- [6] Dong-Hui Sin, Smart Convergence and consilience 3.0,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2011).
- [7] Wilson, Edward Osborne,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Vintage Books USA (1999).
- [8] Hye-Sim Seol, "Differentiation of the study and consilience," Yonsei Historical Journal, Vol. 32, Yonsei History Research (2011).
- [9] Gyeong-Bae Min, Su-Ho Park, Human of Convergence Society and Human Relationship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09).
- [10] Miller, Geoffrey, Spent : Sex, Evolution, and Consumer Behavior, Penguin Books (2010).
- [11]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echnical Report: Standardization and Technical Trends in Emotion Interface (2011).
- [12] <http://news.mk.co.kr/newsReadPrint.php?year=2013&no=39355> Jan 16 (2013).
- [13]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nternational Emotion and ICT Market Status and Forecast, KEIT PD Issue Report (2010).